**교훈이 필요해**

대한민국의 전래동화는 유난히 교훈적이다. 가령, ‘의좋은 형제’는 형제 간의 우애를, ‘심청전’은 孝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용인 것 같다. ‘흥부 놀부’는 극명한 선악의 대비를 통해 ‘착하게 살자’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만큼, 분명한 주제와 권선징악의 구조를 통해 쉽게 교훈을 전달한다. 어머니께서 동화를 들려주신 뒤에는 언제나, “알았지? 그러니까 너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당부가 따라붙었다. 반면, 국외 동화들은 그 주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예컨대, ‘잭과 콩나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나는 평생 알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이 마법의 콩일지 모르니 소 한 마리와 콩 세 쪽을 맞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도둑질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내 자식에게 잭처럼 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은 꼭 다 하며 왕비에게 세 번이나 속은 백설공주나, 이야기 내내 잠만 자고 있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도 왜 행복한 결말을 누리게 되는지 그 영문을 알 수 없다. (어쩌면, 이 난해한 이야기 속에서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잠자리 이야기에서도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학부모의 눈물겨운 각색 능력에 찬사를 보낸다.